

n번방 '갓갓' 검거 지지부진 박사방 '사마귀' 도 오리무중

경찰 특수본, 디지털성범죄 88명 추가검거·11명 구속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성착취 사진·영상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과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9일까지 총 309명을 검거하고, 이중 박사 조주빈(25)을 비롯한 43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본부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는 1주일 새 피의자 숫자와 구속인원이 각각 88명, 11명이 늘어난 성과다. 경찰은 지난 9일 간담회 당시 221명 검거, 32명 구속을 밝힌 바 있다.

309명 중 조씨처럼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을 공갈·협박해 성착취물을 활용한 뒤 제작·유포한 인원은 모두 146명으로 운영자 9명, 유포자 14명, 소지자 123명으로 파악됐다.

텔레그램, 디스코드, 위키 등에서 성착취물을 다운받아 보관해온 가담자가 1주일새 29명 더 늘어난 수치다.

또 제작영상을 확보해 또다른 방을 만들어서 판매하거나 재유포한 경우는 모두 15명으로 채팅방 등 운영자가 10명, 유포자가 1명, 소지자가 4명으로 확인됐다.

불법촬영(몰카) 영상이나 합성되지 않은 성관계 영상을 1대 1 채팅을 통해 유통한 77명도 달미가 잡혔다. 운영자 33명, 유포자 42명, 소지자 2명이다. 다만 이들은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성착취물

제작·유포 가담과는 다른 경우로 분류됐다.

이외 단순 유포나 여성 아이돌 그룹 사진·영상을 활용한 페이스북 합성물을 유포한 SNS상 디지털성범죄로는 71명이 입건됐다.

피의자 연령대는 20대가 130명(구속 22명)으로 가장 많았고 10대 94명(구속 8명), 30대 68명(구속 9명) 등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SNS 이용 디지털성범죄 사건 총 368건 중 38건은 경찰에 송치했으며, 330건을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박사 조씨, '와치맨' 전모씨(38)와 함께 n번방 운영자로 악명이 높은 '갓갓' 검거는 더딘 걸음이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고 수사 중"이라면서 "검거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앞서 갓갓의 IP가 특정됐다는 보도와 설명에 대해 "확인하는 중이기 때문에, 시간을 주면 다음에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앞서 민감통 청장은 정례 기자회견 중 갓갓 검거와 관련 "상당히 의미있게 접근한 상태"라고 한 언급한 바 있다.

텔레그램 본사와 접촉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해외 서버업체와 협조요청하고 있으며, 각 업체와 수사공조가 잘 되고 안 되고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는 수사공조가 알려질 경우 가담자의 도파가 우려되

다는 이유 때문인데 경찰 관계자는 "(도파 정황이) 확인된 것은 없지만, 조심스러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조씨가 앞서 언급한 손석희 JTBC 사장, 윤장현 전 광주시장 등의 관련 수사도 "앞서 밝힌대로 1번씩 불러서 조사했고, 추가 조사업정은 확인된 게 없다"고 밝혔다. 또 n번방, 박사방과 관련해 '연예인이나 교수, 유명인이 이용한 바 있느냐'는 질문에 "아직 확인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닉네임 '부파', '이기야'와 함께 조씨가 주요 공범으로 언급한 '사마귀'는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경찰청에서 열심히 찾고 있으나, 찾을만한 자료가 많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필요하다면 조주빈 면담수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물어볼 필요성은 있었지만 현재 인지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조씨 스마트폰은 계속 포렌식 작업을 벌이고 있는 상태다. 경찰은 포렌식 상황에 대해 "돌아가고 있다. (조씨 소유) 갤럭시(스마트폰)와 애플 아이폰 2대"라고 짧게 말했다. 공범들의 스마트폰도 작업이 진행 중인 상태로, 경찰 관계자는 "각 지방청, 본청에서 포렌식을 통해 증거자료 수집은 진행하고 있다. 나온 자료를 수사관서로 보내 수사 자료로 활용 중"이라며 추가 가담자 검거 가능성을 강조했다.

다만 혐의 유무를 입증하는 데는 시일이 오래 걸리면서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오프라인 상 수사는 현장 폐쇄회로(CCTV)를 보고 탐문도 할 수 있으나 온라인 상 수사는 IP접속과 분석, 국제공조 등이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1만5000개 ID를 이런 식으로 1명씩 수사해 개별혐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유료회원에 대한 수사를 (먼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성착취물 사건과 관련해 자수자는 1주일 새 1명도 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선 자수자는 서울에서 3명, 전남에서 1명 등 모두 5명으로 확인됐다.

국내서 6월 '코로나19' 백신 임상...건강한 성인 40명 대상

일본 "국내 임상 1상 진행할 의의기관 최종 협의 중"

질병관리본부와 국립보건연구원이 국제백신연구소와 협력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의 국내 임상 1·2상 시험 연구를 오는 6월에 실시할 계획이다.

권준욱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4월 6일부터 미국에서 임상시험을 시작한 이노비오(Inovio)사의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을 이용해 국내 임상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노비오의 DNA 백신 후보물질 'INO-4800'은 세포에 직접 유전물질을 주입해 면역반응

을 일으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세포의 상호작용을 억제한다. 코로나19의 유전물질인 RNA를 억제해 치료와 예방 목적 둘다 활용할 수 있다.

독감백신의 경우 독성이 없는 바이러스를 인체에 접종해 바이러스의 특정 단백질만 인식하도록 한다. 다음에 독감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면 이를 기억해 면역 세포를 활성화 하는 방식이다.

반면, INO-4800은 면역에 관여하는 T세포를 직접 활성화 시키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은 사람에게 이 후보물질을 접종하면 면역 T세포가 활성화돼서 감염

방 역할을 한다.

또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에게 투약을 하면 면역 T세포 활성화 등을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치료 효과도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과 국제백신연구소는 안전성 평가를 위해 건강한 성인 40명을 대상으로 우선 진행하고, 향후 인체 투여 안전성이 확인되면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확대 접종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INO-4800 국내 임상시험계획 승인에 대해 검토 중이다.

권준욱 부본부장은 "현재 국내에 임상을 진행할 의의기관과 최종 협의가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건강한 성인 40명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 1상은 오는 6월 중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신규확진 '확' 줄었지만...“등교수업, 최대한 신중하게 검토”

보건당국 "싱가포르, 일상복귀 후 확진자 14배 증가"
교육당국 "확진자 수만 갖고 등교수업 결정 어려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전국 초등학교 4~6학년 학생들의 온라인 개학이 시작된 16일 오전 대구 수성구의 한 가정에서 초등학생이 온라인 학습을 하고 있다.

학생들은 언제쯤 학교에 등교해 수업을 받을 수 있을까.

교육부 희망사항은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쯤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하는 것이지만 그 시기와 방법에 대해 여전히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2명이다. 8일 연속 50명 미만, 4일 연속 30명 미만을

기록했다.

하지만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등교개학의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집단감염이 발생한 싱가포르 등의 사례를 참조해 신중하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직은 등교개학이 '시기상조'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 차관은 "싱가פור는 비교적 성공적인 방역 모범국으로 평가를 받다가

학을 하고 일상으로 복귀한 후 1개월간 14배의 확진자 증가세를 보였다"라며 "이런 위험 요인에 대해 여러 가지 평가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총선, 부활절과 같이 여러 가지 행사 등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향후 1~2주간에 걸쳐서 이러한 영향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등을 신중하게 지켜보고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 역시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하는 시점에 대해서는 "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등교수업의 시기와 방법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만 단순히 확진자 숫자만 갖고 결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학교라는 공간이 굉장히 밀집돼 있어 집단감염 우려가 크고 성인에 비해 학생이 감염됐을 때 우리 사회가 느끼는 민감도가 다르다"라며 "학교가 (등교개학을 했을 때) 상징적 의미도 있어 최대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당국이나 교육당국이 등교수업 재개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싱가포르 사례에서 보듯 학교가 집단감염의 매개체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학교 휴업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긍정적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인쇄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 803번안길 93-10
TEL : 062)943-0135 ~ 6
FAX : 062)943-0134